

교회 목표

신앙의 예배
참국인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가정은 십자가를 세우는 언덕

다음주일(8일) 2부, 3부 가족 연합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는 자체 예배)

가정은 모든 신앙적 삶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부실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십자가를 세우는 언덕이기 때문입니다(요 19:17). 기초가 튼튼해야만 십자가를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약한 언덕이라면 바람만 살짝만 불어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바람은 강력한 태풍 그 이상입니다. 집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은 쉴 틈 없이 밀려옵니다. 정말 매일 강력한 태풍이 십자가를 향해 몰아치고 있는데 그 언덕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커넌 오히려 과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잠 3:1) 자녀들의 입시 때문에 주님보다는 당분간 학업에 열중하라고 십자가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뚫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잠 3:18)?

죄인인 우리가 가정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이루는 가정은 인간의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 습니다(엢 2:16).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주님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존재하는 한시적 제도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십자가 사역으로 바림이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룬 하나님 자녀를 더욱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고전 7:33).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고전 7:29)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갈 형식(고전 7:31)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물질적으로만 윤택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한 몸이 되기를 거부해 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한 몸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골 1:20)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해서 감 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대한 효심을 가르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미워하고 효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공자의 가르침에도 있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디서든 알 수 있습니다(고전 1:23). 그러므로 교회는 땅엿길(골 3:5)을 취하는 인간의 가정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갈 6:14). 이처럼 다음 주일(8일)에는 십자가가 세워진 가정의 모습을 소망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사를 누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년 예배에 익숙지 않은 자녀들에게 예배 순서를 미리 설명하여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혼란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직분자들은 2부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연합예배를 통해서 여하시는 성령의 은화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여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는 언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위임 목사 동정

위임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 세미나 참석중 심장에 관련된 간단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속히 쾌유하여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제4차 성찬식이 오늘(1일) 1부에서 5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오늘(1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기도 있습니다.)

***금주(6일) 금요일의 새벽을 피막으로 주재발표 "안양" 4면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3)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리스도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을 구현하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종으로 묘사하면서, 인간의 육신적이고도 영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기 위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골 1:15).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의 사건이 나타낼 수 있는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요한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그의 말씀의 폭을 넓혀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 기간 중에 행했던 일곱 가지의 기적을 골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기적들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대로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기사는 네 개의 각기 다른 성서사건전례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로 통일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각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출신이 다르지만 -마태, 마르코, 누가, 요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예언된 메시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신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골 1:10).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날 수 있습니다(마 1:21).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마 16:16).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길도 걷게 될 것입니다(마 28:19).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마 16:24).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은 내 안에 들어오는 신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도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조국호 목사)

오늘(1일) 제6차 CMTC 훈민 안대(첫째 날)	제1강	선교의 성경적 기초	(오후 6:10~7:00)	갈릴리움
	제2강	충현교회 비전과 선교정책 전도 특강	(오후 7:10~7:40) (오후 7:40~8:10)	갈릴리움 갈릴리움

ASCENSION

"...⁽⁸⁾but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⁹⁾And after He had said these things, He was lifted up while they were looking on, and a cloud received Him out of their sight...."(Acts 1:1-11)

The greatest miracle that ever took place in human history was God's incarnation. The Eternal God becoming human was truly the most wonderful of wonderful happenings. On a par with this magnificent transformation was Jesus' ascension, His return to heaven. The Old Testament proclaimed that the Son of God, Messiah, would come to Israel, so God's people expected His arrival, but did not recognize Him when He came. They just looked at Him as a human being who was poor and humble, someone without material possessions or political motives. He was a great teacher, healer, and prophet, consequently many people liked and respected Him, and even used Him for their advantage, but they did not worship Him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He was the Son of God.

Even though many people followed Him, they expected more than He delivered. They were disappointed with His ministry because of their own selfish objectives. His claim to be the Messiah angered them to such a degree that they crucified Him because He was not the Messiah whom they wanted and imagined. Jesus died on a cross, but such evil could not hold Him in a tomb more than three days. He resurrected and stayed for forty days on this earth in His resurrection body. During those forty days, He met with His disciples who had departed from Him. He called Peter at the Sea of Tiberias, asking him to tend His sheep if he loved Him. He talked to Thomas, telling him to touch His hands and side and to believe, and Thomas responded, "My Lord and my God"(Jn. 20:28)! He walked on the Emmaus road with two other disciples, explaining to them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in all the Scriptures(Lk. 24:27). Jesus spent forty days giving His followers a special education.

Before Jesus' ascension, Luke 24:50 tells us that Jesus led His disciples as far as Bethany. Bethany was the village where Mary, Martha, and Lazarus lived (Jn. 11:1). It was the place where Jesus told Martha,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Jn. 11:25-26). It was the place where Jesus resurrected Lazarus. On his last day, Jesus brought His disciples to meet these wonderful people at this blessing place. It was His last lesson before blessing and departing from them to heaven.

While at Bethany, Jesus specifically commanded His disciples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 until they receiv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cts 1:4, 8). Jerusalem was the place where Jesus died by crucifixion. They scattered from this place because of its deadly persecution. Jesus wanted them to leave Bethany, place of safety, and return to Jerusalem, place of danger, until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Moreover, in front of their eyes, He ascended into heaven, away from them. They had to go to Jerusalem alone, and stay there without Jesus.

Jesus' forty days of teaching prepared them for their stay in Jerusalem. They witnessed His death, resurrection, and now ascension. They knew He was the Lord of lords and the King of kings. They had asked him in Bethany,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v. 6). Jesus told them they did not need to know when God's kingdom was coming; they just needed to stay in Jerusalem until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From a human perspective, their orders were taking them into dangerous territory without their Commander. If He were coming with them, they might go and stay, but without Him, things did not look hopeful.

As Jesus' disciples stared into heaven to watch Him move farther and farther away, they started thinking about how they were going to obey His command. They may remember when some of Jesus' followers approached His tomb, hoping to embalm Him properly, and there met with two angels? The angels asked them, "Why do you seek the living One among the dead?"(Lk. 24:5)? They did not understand the most exciting Resurrection

Day! The same thing happened at Bethany. The angels came up to the disciples and aske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v. 11)? They did not understand the most exciting Ascension Day! The angels had to ask Jesus' followers the same question twice. The first time they were sad over a dead man who was alive, and the second time they were sad over their Lord leaving when He was coming back. The angels had to tell them,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v. 11). In other words, the heavens had to open up and tell these stupid people, He is coming back again.

After Jesus resurrected, He stayed forty days, then ascended. Ten days after His ascension, the Holy Spirit arrived, which we call the Day of Pentecost (the fifty days sum of these two events). During the disciples' ten days wait in Jerusalem, they hid in Mark's upper room with the doors locked and continually prayed(v. 14). They were scared, not trusting the high priests, scribes, or Pharisees, but only the Lord. They physically and spiritually could not see or hear Him because the Holy Spirit had not yet come. It was an unsettling time where they had to rely on His promise. They were thirsty and waiting for the Holy Spirit. They prayed for Jesus to give them an answer. In their hearts, they knew He was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His Father in His heavenly kingdom. In their hands, they had His Word, "But I tell you the truth, it is to your advantage that I go away; for if I do not go away, the Helper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Jn. 16:7). Even more,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Jn. 16:13). Amen. Jesus' ascension would bring amazing results!

Luke wrote the Gospel of Luke, which records Jesus' ministry from earth. He also wrote the Book of Acts, which reports Jesus' ministry from heaven. The Book of Acts is about the actions of Jesus' followers who listened and obeyed. Acts opens in chapter one because of Jesus' ministry in heaven, His ascension. He i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God put all things in subjection under His feet, and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Eph. 1:22). He controls everything, especially the church! He stays with His people all the time, "For where two or three hav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I am there in their midst"(Mt. 18:20). Although He is in heaven, He is in control and is always with us,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Mt. 28:20).

The ascended Lord Jesus is the hope of glory to everyone who believes (Col. 1:27). He gave His power to His church through His Holy Spirit, so that we could worship and praise Him with great joy. After the Holy Spirit came down from heaven, Peter started preaching in Jerusalem, without fear, and 5,000 people repented. Just fifty days prior, the same people wanted to kill Jesus, now He offered them the gift to receive the Holy Spirit. Acts 2:43&44 says, "Everyone kept feeling a sense of awe; and many wonders and signs were taking place through the apostles. And all those who had believed were together and had all things in common." Is that amazing power? Stephen also performed great wonders and signs, and died preaching the most powerful sermons. Paul, a Christian persecutor, became one of the greatest Christian lovers. After Jesus' ascension, from His ministry in heaven, the church received the power to grow, glorify God, and experience true joy and worship. We gather together today in His power and presence. Yes, He has ascended, but through His Spirit He stays with us spiritually. Yes, He will come again, and with His angels, He will physically stay with us in heaven forever. Amen. 🙏

다음주일 설교

다음주일 설교

승 천

...⁽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⁹⁾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그룹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행 1:1-11)



김성판 목사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일이야말로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또한 이에 못지 않은 기적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학수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오셨을 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단지 가난하고 불품없는 한 인간으로, 가진 것도 없고 정치적인 야망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요, 치료자였으며, 예언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것 그 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워주지 못 하자 이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주장은 이런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절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던 정치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약의 선택은 기껏해야 3일 동안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렀습니다. 그 40일 동안 주님은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재삼 확인하시며 자신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또 주님은 도마를 찾아가 도마로 하여금 그의 손과 허리를 만져보고 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지 아니나이까?” (20:28).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다른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성경에 있는 자기의 관한 모든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24:27).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베다니까지 이끌고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바로 올리와와 마르다, 마리아와 살람이 있었습니다(요 11:1). 이 곳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25-26). 이 곳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이 축복의 장소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그 기적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떠나가시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의 예수님

한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행 1:4).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행 1:8).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흠여지게 된 것은 선한 필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한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칠상가상으로,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남겨둔 채 하늘로 올라가시며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혼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만군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어 이 메시아가”(행 1:6).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니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예수님도 없이 그들대로 위험천만한 것으로 보이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러하고 نحن가 그들대로는 갈라질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지하지 않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지켜봐

서,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행동에 옮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를 만났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때 천사들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눅 24:5). 그들은 이 가슴 벅찬 부활의 날을 깨닫지 못하였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베다니에서 벌어졌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행 1:11a). 이번에도 제자들은 이 경이로운 승천의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천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줄로 여겨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지 못하고 주님이 떠나심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들을 일깨워 주어야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실 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b). 다시 말하면, 하늘은 입을 열어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즉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는 이날을 성령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부활과 성령강림 사이에는 5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날을 기다리던 열흘 동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문을 잠근 채 기도하며 전념했습니다(행 1:14).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고,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주님을 보거나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흘간은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강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응답을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무언에 앉아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상생을 말하느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기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앉아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요 16:7).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지리외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아멘, 예수님이 승천 하심으로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누가복음의 지상 사역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의 천상으로 부러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사역, 곧 그의 승천으로 첫 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또한 교회 만물 위에 주셨습니다.(행 1:22) 주님은 모든 것,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행 18:20). 비록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골 1:27). 주님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권능을 교회에 넘기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였고, 오직 천령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했던 그들은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죽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44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때만 했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고, 가장 강력한 설교를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많이 핍박당했음에도 가장 위대한 사도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주님의 천상에서의 사역으로 인해 교회는 성장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기쁨과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인내 속에 함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실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

피택장로 주제발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 '언약'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 7:22)

지난 6개월 동안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종(롬 1:1)으로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11일)에 임직될 피택장로들은 오직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언약'이라는 진주를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관계의 기본 구조는 언약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밝히고 있는 새 언약, 은혜 언약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종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1. 선약과 언약 /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동산의 선약과를 가지고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맺으신 행위 언약이다(창 2:16,17). 이 언약의 목적은 결코 인간을 속박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 언약의 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결국 영생의 복으로부터 축출의 저주로 떨어졌다.

2. 여자의 후손(메시아) 언약 /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범죄해 한 사탄을 주하시면서 말씀하신 은혜 언약이다(창 3:15). 은혜 언약은 창세 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워진 언약이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새롭고 언약을 갱신하시므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눅 1:35).

3. 무지개 언약 /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노아와 그의 가족 및 생물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다. 이 언약은 하늘의 기둥이나 땅의 기초보다 더 확고하게 세워지므로 결코 취소되지 않는 영원불변한 약속이며 모든 세대와 맺은 보편적인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십자가 새 언약은 믿는 성도들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특별 언약이다(고전 1:18).

4. 핏줄 언약 /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은혜 언약이다(창 15:17). 핏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재확장하셨다. 핏줄 언약에는 회생 제물이 등장하는데 그 제물의 조각처럼 사이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핏줄이 지나가는 것이다(롬 3:25).

5. 할례 언약 /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남자들은 모두 다 양피를 베라고 말씀하신 은혜 언약이다(창 17:9-14).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언약의 표시이며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증거이다(창 17:1, 5-25, 고전 7:19). 영적인 할례란 죄, 불순종, 교만함으로 얼룩져 있는 그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벧전 3:21).

6. 이삭 언약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계승이요 비종이며 재확인으로서 이삭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다(창 26:2-4). 이 언약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창 13:14-17, 15:7-9, 17:4-8)과 동일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갈 3:16).

7. 사닥다리 언약 / 형 에서의 핏발을 피해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뱀뱀에서 맺으신 은혜 언약이다(창 28:12-15).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교만한 인간에게도 택하시라 회개와 믿음으로 변화시켜 끝까지 동행하시며 보호하신다. 우리는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약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기뚁한 일하심을 볼 수 있다(히 13:5,8).

8. 시내산 언약 /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맺으신 은혜 언약이다(출 19:3-6).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신약적, 역사적, 혈통적 모태가 됨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였다(출 19:14). 죄인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성결히 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레 7:14, 민 2:14).

9. 소금 언약 /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성물에 대한 은혜 언약이다(민 18:19).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후 7:1).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신 것처럼 영적 제사장들인 교회의 모든 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마 6:33).

10. 평화 언약 /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세대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선지자 발람의 유혹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남녀를 징벌한 모세의 손자 비느하스와 맺으신 제사장 계승에 관한 은혜 언약이다(민 25:12,13). 참된 평화는 인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며 결국 종말에 완성될 것이다(사 53:5).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됨을 의미한다(사 54:10).

11. 모압평지 언약 /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직전 모압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과거 '지내산 언약'의 내용을 재해석해 주면서 순종을 요구하셨던 은혜 언약이다(신 29:1,9).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신 29:2-8).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고전 13:10).

12. 다윗 언약 / 하나님께서 다윗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다윗에게 그의 가문에 의한 영원한 왕권 보장과 그의 후손을 통한 성전 건축이란 내용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 언약이다(삼하 7:13). 다윗 언약은 새 언약으로 성취될 예수님의 그림자이다(사 55:3, 마 1). 다윗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신앙 공동체/교회), 그의 성전(그리스도의 육체/주님의 교회)이 계시된다. 다윗 언약이야말로 메시아의 도로로 시작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전형적인 예언이다.

13. 그리스도 언약 /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인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다(마 26:28, 요일 1:7). 모든 언약의 핵심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약속하신 생명의 언약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고생을 감내하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의 증표이다(렘 31:31-34).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성취되었다(요 6:53-55, 고전 11:25).

14. 성령 언약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 언약이다(마 14:16). 성령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씀하신다(마 1:9). 주님께서 주신 성령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증이 되신다(롬 8:2, 고전 12:3).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그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중언이 되었다(행 1:8).

15. 제림 언약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신 은혜 언약이다(히 9:28).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요 6:40).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4:1-3). 주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주여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맺으신 거룩한 언약의 기록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한결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표한다.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다 성취되었고 오직 제림 언약만 남아 있다. 제림 언약 역시 곧 성취될 것이다. 주님의 교회들은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그 날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명백하게 볼 것이다(고전 13:12). 그 날이 오지 않은 지금, 우리들은 믿음과 믿음을 통해 천국을 본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들이 그 날이 올 때까지 전심 전력하여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벧전 1:19).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제림에 대한 예언 성경을 미리 맛보며 더 큰 확신 가운데 그 날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제22:20).

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 마지막 날, 사역지 시내에서 늦도록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다. 이미 날은 어두워 전도지 글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아쉬운 마음으로 찬양을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발전기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깃불을 비추어 준 것이었다. 우리는 매우 기쁜 마음에 더욱 힘차게 찬양을 하였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년들도 다가왔다. 주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쁨에 가득찬 찬양소리는 온 시내에 울려 퍼졌다.

어느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찬양을 따라하게 되어 나중에는 모두가 합창하게 되었다. 헤어질 때 어린이들이 달려 나와 우리들의 가슴으로 뛰어 들었다. 그들은 가슴 가득히 안겨 떨어질 줄을 몰랐다. 어린 심령이 그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천사의 순수함과 환희가 감지되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심령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입술은 저절로 열려,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자들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각인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임정숙 (집사, 11교구)

오직 기도로써

선교 활동은 돈이 많고 잘 사는 동네인수록 더 힘들었다. 그들은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오직 자기 힘으로만 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자만하고 으스스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정말 이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부유하게 된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

선교 활동을 마치고 숙소에서 들어가서 평가회를 한 후 방에 들어가 오는 선교 활동을 생각하면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을 묵상하면서 전도멘토도 나름대로 계획해 보았지만 오직 기도로써 준비하는 것이 제일임을 느꼈다.



박정혁 (고동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몇 한 명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겉대기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적어도 몇 분의 진짜 그리스도인을 심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엄청난 현실을 바라보며 믿권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는 정직한 전공의 대학생, 사장의 믿음과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몇 년을 기도하는 전장, 우리에게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다’며 눈물을 흘리시던 아주머니, 타락하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심에 감사한다는 분. 이런 그리스도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치열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유재철 (대학부)

▲ 이번 주에 졸업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5월 2일(월) - 5월 9일(월)	3교구 7지역	문영규	5월 3일(화) - 5월 12일(월)	18교구 7지역	유상태
5월 2일(월) - 5월 10일(화)	7교구 6지역	조종덕	5월 4일(수) - 5월 13일(월)	1교구 9지역	이승계
5월 2일(월) - 5월 12일(목)	18교구 6지역	김원호	5월 4일(수) - 5월 13일(월)	12교구 6지역	이성섭
5월 3일(화) - 5월 12일(목)	2교구 8지역	이정택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4월 18일(화) - 4월 27일(수)	15교구 4지역	박준택	4월 19일(화) - 4월 30일(월)	1교구 7지역	이부성
4월 19일(화) - 4월 28일(목)	13교구 4지역	임재봉	4월 21일(목) - 4월 29일(목)	12교구 4지역	정원근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배달부

단기선교를 가기 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 “미경아, 넌 선교를 왜 가니? 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했던 말은 “음... 우선 선교를 가면 저한테 은혜가 되잖아요.”였다. 이 정도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기도 했고, 나름대로 ‘선교를 왜 가냐?’ 하고 심각하게 질문하기도 했었다. 벌써 이번 선교가 세 번째인지라 혹시 그저 그렇게 따라 가는 게 아닐까?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첫 번째 선교와 두 번째 선교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앞으로 선교를 못 갈 것이라는 생각이 비장한 각오로 나섰던 G국 선교는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었고, 두 번째로 나섰던 Y국 선교는 거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던 값진 선교였다. 이제 맞이하는 세 번째 선교에서 나는 지난 선교에서 받은 은혜를 동시에 체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 후원자들에게 내어 놓으면서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시고자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었다. 아주 오래 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쳤던 내 가슴은 어느덧 차갑게 열려버렸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던 나는, 때가 되며 나를 서서히 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감동하게 되었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준비가 안 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요.”라고 외쳤다. 그때 나의 사역을 기뻐할수록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한없이 기뻐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거부하는 사람에게는도 영접기도를 한번 읽어 보라고 권하면서, 이 기도 또한 아버지께서 들어 주시길 간구했다. 그리고 그 곳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전도지를 들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비웃던 그들, “예수, 예수”만 외친다고 믿었거던 그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점점 측은해지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려구나.’라고 생각했다.

단기선교를 마치고 몸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메모지를 남기며, 몸을 청소하는 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며 나의 마음이 마트해짐을 느꼈고, 이 모든 것들이 진정 기쁘고 감사했다. 작던 한 해 동안 나의 기도 제목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정도로 감사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 중에 있음을 감사드리고,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참 되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유미경 (대학부)

유서

나는 주님께서 D국 땅으로 보내셨기에 그 땅에서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 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귀한 도구였기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세상의 돈으로 바라볼 때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나의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보다 주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를 위해 돌아오신 주님께서는 날 맞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인간이기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두렵고 떨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날 위해 변호(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죽는다는 하더라도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p.s. 얼마, 아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 이 유서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쓴 것입니다.
이 유서를 쓴 지혜는 은혜 가운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 인제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4월 25일(월) - 5월 4일(수)	7교구 2지역	최대환	4월 25일(월) - 5월 4일(수)	교구외 간사팀	이종우
4월 25일(월) - 5월 4일(수)	7교구 3지역	신용환	4월 28일(목) - 5월 7일(월)	청년2부2	허형철
4월 25일(월) - 5월 4일(수)	15교구 6지역	신동식	4월 29일(금) - 5월 7일(월)	창교 3지역	박형식
4월 25일(월) - 5월 4일(수)	15교구 3지역	김태식	4월 29일(금) - 5월 7일(월)	9교구 2지역	조종광

예수님 감사해요

유아부에서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많이 울었어요.
유치부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전도사님 말씀도 아주 재미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기다려져요.
찬송도 부르고 율동도 하며 선생님도 만날 수 있어서
유치부가 정말 좋아요.
부활절 그림그리기에서 상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내 죄 때문이래요.
예수님 감사해요.
아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대요.
내가 좋아하는 인형도 주시고
맛있는 고기도 주시고 딸기도 주셨어요.
많이 먹고 많이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반 사람이 될래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김주원 (유치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김원형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4학년이 되어서 바로 외운 말씀인데요, 말씀을 외울 때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외우면 외울수록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 제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원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셨다니 얼마나 감사하든지...
늘 초등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김원형 (초등부)

예수님께 보내는 문자메시지 (소년부)

- ♥ 예수님 저희 소년부와 중현교회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나와서 성경공부와 찬양 찬습을 하는 중현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장지민)
- ♥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지연)
- ♥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송준근)
- ♥ 예수님, 항상 저희 마음 속에 있어주세요. (전진규)
- ♥ 저는 예수님의 열광이랑 목소리를 듣는 게 소원이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문지영)
- ♥ 앞으로 전도로 잘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게요. (권성)
- ♥ 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참된 구주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 으면면 지옥을 가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커서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힘들어도 함께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알리게 해주세요. 제가 한 말이 하나님께 보내져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추운 겨울을 지나 조금 서늘한 날이 왔다 싶더니 이제는 따뜻한 햇살이 좋은 계절이 왔다. 모두 이런 계절을 좋아한다. 따뜻한 햇살을 보면 누구라도 밖으로 나돌기를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대학부의 많은 팀들이 이런 봄날을 느껴 보고교 교외에서 팀 모임을 가졌다. 물론 우리 팀도 교외로 나가 이 봄날의 파스함을 맛껏 느끼고 왔다. 찬란한 빛, 따뜻한 빛을...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따뜻한과 환한 빛을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면 그렇지 않는 자인간 인간 자체가 빛을 사모한다. 우리는 이런 빛의 주재미영원하신 근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비추는 빛과 파스함이 우리를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듯 인간 근본은 영원한 빛을 사모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 비추어진 많은 한시적인 것에 안주하여 영원함을 맛보려하고 있다. 아무리 형광등 빛이 밝고 강해도 그 빛이 태양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어떤 빛을 찾아 헤맨다.

우리는 영원한 빛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그 영원한 빛을 보지 못 하게 놓은 가짜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이 봄날 날씨가 좋다는 이유로 대학부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다. 영원한 빛이 여기에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내 소임을 다하지 못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요, 학원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의 소임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그들이 다른 곳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망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빛을 아는 사람만이 그 빛의 전가를 한다. 우리 자신이 그 빛으로 변했다면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이다. 이제는 조금씩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써 주위의 친구에게, 동료에게 나의 빛을 조금씩 비추어야 한다. 내 자신을 소망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소망하고 나와 함께 빛을 비추실 주님을 소망하자.



홍인호 (대학부)

교회탐방 62 소년부 오케스트라

내 모든 것, 주님의 것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께 영광 돌리는 소년들이 있다. 이들은 주를 위한 일에는 반드시 기쁨을 있다는 것을 미리 안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분주한 날을 보내면서도 늘 행복하다는 소년부 오케스트라를 만난다.

소년부 오케스트라의 하는 일은?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재은, 악장)

노래와 함께 다양한 악기의 소리로 리듬을 전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윤승운)

소년부 오케스트라를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어려서부터 찬양대를 했는데 좋아하는 악기인 플루트로도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홍서운)

유치부 때 오케스트라를 애아 갖다는 도전을 받아서입니다. (권수정)

악기로 찬양을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강석은)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가 좋아서 오케스트라를 지원했습니다. (원나연)

선생님들께서는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지도하시니까?

현재의 우리 오케스트라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발전된 모습을 바라보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정적인 부분과 음악적인 부분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이원경, 지휘자)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힘 있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우리 오케스트라가 조금씩 발전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낍니다. (김경희, 반주자)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요?

좋아하는 플루트를 마음껏 부는 일이 좋습니다. (홍서운)

연주를 하면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재은)

충분히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뻐요. (권수정)



연습이 많아서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주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하고 달란트를 위해 실력을 쌓고 또 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승운)

연습이 힘들지만, 재주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연습을 합니다. (강석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연습을 할 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재은)

성탄절 연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 찬양 때 본당에서 영광 돌린 일입니다. (윤승운)

영적 훈련은 어떻게 하세요?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본분 공부 시간

에 열심이 성공공부를 합니다. (강석은)

될 수 있는 대로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홍서운)

시간 날 때 틈틈이 성경 읽고 기도해요. (이재은)

자기 전에 꼭 가정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에 기도해요. (이재은)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해요. (원나연)

선생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역할도 큼니다. 아이들이 온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휘자와 아이들과 부모님과도 상충주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연주를 만들어 냅니다. (지휘자)

단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나 제가, 달란트를 쓰시려는 주님께 달란트를 쓰시도록 내어 드리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주자)

그런데 소년들은 일을 모아 색다른 부탁을 한다. 아주 진지한 부탁이다.

"오케스트라를 단지 찬양을 돕는 연주대로만 보지 말고 온전한 찬양대 자체로 봐주세요."

(편집실)

다음주일 찬송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에 관해 부른 찬송 중 '내 어머니의 성경'만큼 잘 알려지고 많이 애창되는 찬송은 없다. 신약의 성경의 중요 내용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은 회상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귀중함을 감하게 말하고 있다.

작곡은 찰스 데이비스 필만 목사(Rev. Charles Davis Tillman, 1861~1943)가 작곡했고, 부흥사로 알려진 윌리엄스 목사(M.B. Williams)가 작사했다.

1절은 작사자가 어머니의 무릎 옆에 서고 어머니의 손이 그의 이마에 얹혔을 때를 기억하며, 그때 어머니가 열심히 읽으셨던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 지금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다.

후렴은 어머니들이 들려 주시면 그 귀중한 말씀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심히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한다.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보듯이 이러한 어머니님께서 읽어 주시던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2절은 다니엘, 다윗 왕, 엘리야의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많이 해 주시던 어머니의 신앙을 그 자신은 물론 모든 신앙인들이 듣고 신앙의 위인이 되길 원했던 것 같다.

3절은 주님께서 들려 주실 때 홀리시며 사랑하신 것이 날 위험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실 때 자기는 한없는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입맞춤으로 그 눈물을 닦아 주셨다는 내용의 참으로 감동적인 시이다. 그러나 모자가 눈물로 감격한 이 감격이 평생 주를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는 진도지가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

4절은 어머니가 사랑하신단 주님, 어머니가 애송하신 성경,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대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결심을 노래한다.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의 소중한 기억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51	이유희	8 장년1부	이영희(1)	1274	유영희	10 장년1부	김순희(1)	1297	송남영	7 장년1부	배인숙(7)
1252	주지현	8 장년2부	황경희(2)	1275	한금순	1 소말부	이수희(2)	1298	손익근	13 장년1부	장지영(8)
1253	이석진	11 소말부	노순옥(2)	1276	변성대	1 소말부	이수희(3)	1299	심부은	13 장년2부	심순덕(14)
1254	리후미영	197 외선부		1277	이희형	9 장년1부	홍정희(1)	1300	윤민아	19 장년1부	최남희(3)
1255	김효은	19 장년2부	김영희(2)	1278	장진영	19 대학부	우정희(1)	1301	김민정	19 장년1부	송현영(8)
1256	송유자	4 장년3부	임영희(2)	1279	박세경	9 고등부	이미예(2)	1302	조연주	19 장년1부	조재철(19)
1257	고봉희	15 소말부	인선재(1)	1280	최재경	5 장년2부	김경자(1)	1303	양영희	19 대학부	양기수(5)
1258	김선숙	1	신호영(2)	1281	신상영	8 장년2부	안복남(1)	1304	최정우	19 장년1부	양기수(5)
1259	한정옥	1 장년2부	오은복(1)	1282	최희승	19 장년2부	최동승(1)	1305	나현수	10 장년2부	정영숙(8)
1260	김경호	9 장년3부	김희영(2)	1283	권문철	19 외선부		1306	박영환	13 장년2부	이정희(8)
1261	김갑철	7 장년2부	채희숙(1)	1284	김희숙	19 대학부	김주희(1)	1307	우기환	19 장년1부	추병환(8)
1262	박제은	13 장년1부	박혜옥(2)	1285	고광주	9 장년2부	김민희(1)	1308	정인영	19 장년1부	이정희(17)
1263	이태원	13 장년1부	박혜옥(2)	1286	오지수	9 장년3부	신은아(1)	1309	김영일	11 장년2부	이연희(7)
1264	이은우	13 중등부	박혜옥(2)	1287	김정환	19 대학부	안성희(1)	1310	김순자	11 장년2부	조동민(7)
1265	정현식	19 대학부		1288	황리	19 외선부	한영희(17)	1311	권영숙	6 장년2부	이진규(8)
1266	김은종	19 장년1부	김미재(1)	1289	유도경	19 장년2부	김영숙(1)	1312	박수경	4 장년1부	김미재(1)
1267	이동희	19 장년1부	김경자(2)	1290	김민아	19 장년1부	이정희(1)	1313	권영자	18 장년2부	최영희(1)
1268	이미주	5 장년1부	정문자(1)	1291	이민주	19 장년1부		1314	이소영	19 장년1부	정영희(1)
1269	이태수	2 장년2부	시경희(1)	1292	이길주	16 장년3부	박정숙(1)	1315	임시라	19 대학부	이영희(1)
1270	손준주	2 장년2부	박지현(1)	1293	이병옥	16 장년3부	조동경(1)	1316	김영숙	16 장년2부	김은숙(7)
1271	박영일	12 장년1부	문정숙(1)	1294	오혜문	3 장년2부	박정숙(1)	1317	윤창기	1 장년1부	양민희(1)
1272	고영호	19 장년1부	조영희(1)	1295	김희희	3 장년2부	박정숙(1)	1318	한영아	19 장년1부	한숙희
1273	원현식	9 장년2부	임영희(2)	1296	박수희	11 장년2부	김정자(1)	1319	박정민	19 대학부	손진영(1)

※ 찬송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